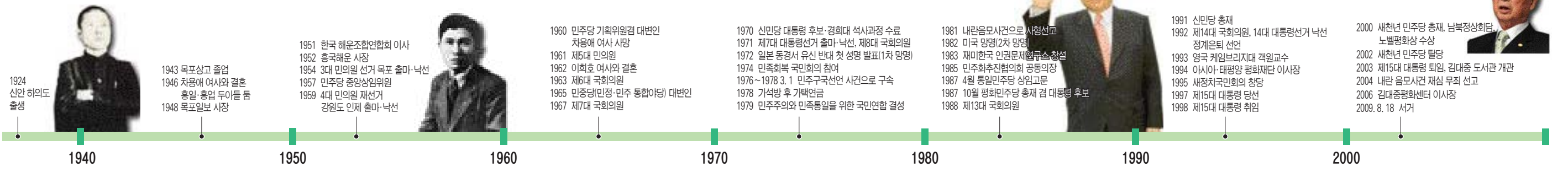


# 김대중 前 대통령 서거

## ■ 김대중 전 대통령 연보



# 內亂首魁에서 대통령까지...민주주의의 '산역사'

〈내란수괴〉

## ■ '한국 정치의 거목' DJ의 삶

후광(後廣)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화와 민족 화합, 세계 평화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대한민국 현대사의 거목이었다.

그의 인생 역정은 군사정권과 개발독재에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납치, 투옥, 연금 등 정치적 탄압이 이어졌으며 그를 향한 끊임없는 색깔론 공세는 분단국가의 현실과 아픔을 반영했다.

그러나 민주화와 민족의 평화 통일을 향한 그의 의지는 인동초(忍冬草)처럼 꿋꿋하게 살아나 헌정 사상 첫 수평적 정권교체와 해방 후 첫 남북정상회담이란 열매를 맺었으며 한국인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하의도 소년, 금배지 도전=김 전 대통령은 1924년 1월6일 목포 앞바다에 솟아있는 섬, 하의도에서 조각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교육열이 남달랐던 그의 어머니는 전담을 팔아 하의초등학교 4학년 때 목포로 유학, 목포상고(현 전남제일고)에 수석 합격했다. 졸업 후 강제징집을 피해 일본인이 운영하던 해운회사에 취직했다 해방 후 이 회사 관리인으로 사업수완을 발휘, 목포일본까지 경영하는 등 청년실업가로 성장했다.

그는 한국전쟁 중 우익반동이란 이유로 공산당에 붙잡혀 투옥됐으나 총살 직전에 탈출, 생애 5번의 죽을 고비 중 첫번째 고비를 극적으로 넘겼다.

김 전 대통령의 정계 입문 과정은 3선4기 끝에 성공한 그의 대권 도전사와 닮은꼴이다.

1954년 실시된 제3대 민의원 선거 때 목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쓴 잔을 마신 그는 1956년 장면 박사가 이끌던 민주당에 입당, 본격적인 정치의 길로 들어섰다. 4·19 혁명으로 이듬해 5월 강원도 인제 보선에서 생애 첫 금배지를 달았다. 하지만 당선된 지 사흘 만에 5·16 군사정변이 나는 바람에 선서 한번 못해보고 의원직을 잃고 말았다.

있던 낙선으로 재산을 탕진한 그는 1959년 첫 부인 차용에 써와 사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다. 그러다 62년 YWCA 연합회 총무로 활동하던 미국 유학파인 이회호 여사와 재혼, 가정적으로 안정을 되찾았고 1963년 6대 총선 때 목포로 지역구를 옮겨 금배지를 달면서 중앙 정치무대에 발을 디뎠다.

◇40대 기수, 고난의 길=1971년 첫 대선 도전에서 1997년 4수 끝에 최고 통치권자에 오르기까지 36년간의 대권 도전사는 좌절과 재기의 반복이었다.

1967년 7대 총선에 당선된 뒤 그해 5월 한평생 정치적 동지이자 라이벌이었던 김영삼(YS) 전 대통령과 원내총무 경선에서 첫 대결을 펼치지만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의 '3선 개헌'이 단행된 1970년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며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되면서부터 한국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다.

당시 대선에서 95만표 차이로 석패한 DJ는 사실상 '박정희 정권'의 최대 적(敵)이 됐다. 이후 DJ는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반복되는 가택연금과 구속, 납치 등의 시련을 겪으며 민주화 세력의 중심에 자리잡게 된다.

1979년 12·12 사태를 통해 집권한 전두환 군사정권은 비상계엄선포와 함께 광주 민주화운동을 토대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해 냈고, DJ에 사형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등 국제사회의 구명운동으로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감형된 뒤 DJ는 결국 1982년에 미국 망명 길에 올랐다 1985년 12대 총선을 앞두고 전격 귀국, YS와 함께 직선제 개헌투쟁을 전개하면서 1987년 6·29 선언을 이끌어 냈다.

◇민주화 세력 분열, 정치 위기=그러나 1987년 13대 대선을 앞두고 YS와 후보단일화에 실패하자 김 전 대통령은 평민당을 창당해 출마한다.

당시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민주진영의 정권교체가 보다 유력시되는 상황이었던 두 사람은 끝내 권력욕 앞에서 갈라졌다. 특히, 대선에서 노태우, 김영삼 후보에 이어 3위에 그친 DJ는 민주진영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만 했다. 김 전 대통령 스스로도 훗날 "당시 내가 후보직을 사퇴하는 게 옳았다"고 회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8년 총선에서 평민당이 호남과 수도권에서 선전하면서 제1야당으로 부상했으나 DJ는 1992년 12월 대선에서 3당 합당을 기반으로 한 YS



지난 1987년 11월30일 여의도 유세에서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날린후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는 당시 평민당 김대중 대통령 후보. (광주일보 자료사진)

## 여야 수평적 정권교체 정치발전 새 지평 한반도 냉전구도 해소 '6·15선언' 이끌어내

에게 패해 대권 3수에 실패했다. 이에 DJ는 국회의원직 사퇴 등 정계은퇴를 선언하며 사실상 파란만장한 정치 인생에 마침표를 찍는 듯 했다.

◇대통령 당선과 노벨평화상 수상= 대선 패배 이후 영국으로 건너간 한반도 평화통일 방안을 연구하던 DJ는 1993년 귀국, 아태평화재단을 설립한다.

정치 복귀 시기를 저울질하던 DJ는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 지방선거에서 황색바람을 일으키면서 정치적 입지를 회복한다.

결국 1997년 대선을 앞두고 DJ는 충청권의 맹주인 JP(김종필)와의 후보단일화에 성공, 그해 12월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DJ의 당선은 비록 여야 간의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했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사에 역사적 사건

으로 평가된다. 집권 5년 동안 DJ는 IMF 외환위기 조기극복, 남북 첫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이룩했으며 정보통신(IT) 산업 기반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 제정을 통한 생산적 복지확대 등을 이뤘다. 여기에 한 국민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며 국가의 위상을 높였다.

이에 반해 국민적 동의없는 대북송금과 아들들의 비리 연루, 각종 게이트 등으로 국민의 정부는 도덕성에 큰 타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DJ는 평화적 정권교체에 이어 정권 재창출에까지 성공했다

◇자연의 김대중= 퇴임 이후 DJ는 정치 현안에 대해 말을 아꼈다. 참여정부 초기,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의 분열이 현실화되고 대북송금 특검과 최측근인 박지원 의원과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이 구속 수감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민주세력의 대통합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나갔다.

그러나 보수 진영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한 이후 DJ는 정치 전면에 다시 나섰다. "내 몸의 반이 떨어져 나가는 듯 한 아픔을 느낀다"는 말로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충격을 나타낸 DJ는 이명박 정부를 직접 비판하며 맞서기 시작했다.

결국 마지막 연설이 된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에서 DJ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이라고 주장하며 청중들에게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던 DJ는 지난 7월13일 흡인성 폐렴 증세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고 생사의 기로에서 김영삼,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과거 경쟁 또는 반목 관계에 있던 이들이 잇달아 병상을 찾아 극적인 '화해 드라마'를 연출했으며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 통합'이라는 해묵은 화두를 다시 정치권에 던졌다.

그러나 37일간의 투병 속에서 한국 정치계의 거인이자 민주화의 상징이었던 김 전 대통령은 병환을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운명했다.

## 訃告

# 김대중 전 대통령서거

###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동원기업(주)**  
동원그룹(주) 대표이사 회장 김대중(1924~2009)  
대표이사 회장

**메어스 그래픽**  
대표이사 회장 김대중(1924~2009)  
대표이사 회장

**명화퍼블리싱**  
대표이사 회장 김대중(1924~2009)  
대표이사 회장